

[충청남도 조례 제4963호]

따뜻한 조례

충청남도교육청
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

대표발의 | 김영수 의원

“모든 학생이
학습권과 건강권을
누릴 수 있도록”



충청남도의회
CHUNGCHONGNAM-DO COUNCIL

학교보다는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

암이나 심혈관 질환, 뇌혈관 질환,
소아당뇨, 희귀난치성질환 등
**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
난치병 학생들입니다.**

이 학생들은 **투병이라는 어려움 중에도
학업을 병행하며 꿈을 향해 내딛고 있습니다.**



그러나 학교에서 부딪히는 편견어린 시선,
이들의 투병에 보호막이 되어줄 시설 및 자원 부재 등
난치병 학생들은 사실상 학교에서 다양한 어려움에
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



우리 사회는 이러한 장막을 없애고
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
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.



충청남도교육청은 2021년,
도내 난치병 학생 200명에게 1인당
2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5년간 총
1004명의 학생들에게 20억 800만 원의 성금을 지원했습니다.



충청남도의회는 이처럼 난치병 학생들에게
더욱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
마련하기 위해 '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
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'를 제정했습니다.



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에
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4 조

난치병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 위한
지원계획 수립·시행 규정

제 6 조

난치병 학생 지원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
'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' 설치

제 9 조

난치병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
지원 가능 사업 규정

-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및 난치병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
-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, 건강상담 공간 확보 및 투약 공간 마련
- 난치병 학생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·홍보 등





우리는 난치병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
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받는 사회를
만들어나가야 합니다.

충청남도의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,
교육복지 실현을 이루기 위해
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.

